



## 동아시아 지식인의 반성의식에 대한 고찰

- 임철우의 『백년여관』과 왕명의 『변신인형』을 중심으로

A Thought on the Introspective Activities of the East Asian Intellectuals

---

저자                    송향경  
(Authors)            Song Xiangqing

출처                    [동아문화 52](#), 2014.11, 113-138 (26 pages)  
(Source)            [The Journal of S.N.U. Institute for Asian Studies 52](#), 2014.11,  
113-138 (26 pages)

발행처                [서울대학교 동아문화연구소](#)  
(Publisher)          Institute for Asian Studies Colleges of Humanit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URL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139742>

APA Style            송향경 (2014). 동아시아 지식인의 반성의식에 대한 고찰. 동아문화  
, 52, 113-138.

이용정보            서울대학교  
(Accessed)          147.46.182.23  
2015/12/30 10:41 (KS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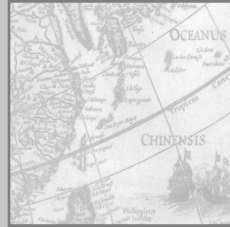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자료를 원저작자와의 협의 없이 무단게재 할 경우, 저작권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The copyright of all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original author(s).  
Nurimedia is not responsible for contents of each work. Nor does it guarantee the contents.

You might take civil and criminal liabilities according to copyright and other relevant laws if you publish the contents without consultation with the original author(s).



東 · 亞 · 文 · 化 · 52

# 동아시아 지식인의 반성의식에 대한 고찰: 임철우의 『백년여관』과 왕명의 『변신인형』을 중심으로

송향경

1. 주인공과 작가
2. 영원을 향한 멜랑콜리
3. 화해를 위한 양심의 가책
4. 반성하는 글 쓰는 지식인
5. 결론



## 동아시아 지식인의 반성의식에 대한 고찰: 임철우의 『백년여관』과 왕명의 『변신인형』을 중심으로

송향경\*

지난 한 세기는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서양이 개척한 근대와의 정면적인 대면을 시작한 시간이고 고난과 역경의 시간이었다. 외부세력의 침략과 탄압 속에서 진행된 전근대로부터 근대로의 전환, 침략에서 벗어난 뒤 또 겪어야 하는 자국 정권의 억압적인 통제로부터 가까스로 벗어나 자유로운 환경에 이르기까지, 개인에게 가해진 상처에는 피가 나고 아물기를 반복 하여 이미 굳은 살이 박혀버렸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이 아픔이 치유되어 잊혀지기 전에 계속 이 상처를 건드리고 아픔을 느끼면서 반성을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 작가 임철우의 장편소설 『백년여관』과 중국 작가 왕명(王蒙)의 장편소설 『변신인형(活动变人形)』을 사례로 두 작가가 아물어 가는 상처를 다시 환기하는 방식과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오늘날 한·중 지식인들의 반성의식과 상처에 대한 치유의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백년여관』과 『변신인형』에서는 모두 지식인이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임철우의 장편소설 『백년여관』은 영도(影島)라는 섬에 있는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일제 강점기부터 광주민주화운동 이후까지의 한국 100년의 역사를 ‘백년여관’에 모인 인물들의 갖가지 사연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왕

---

\* 서울대학교 비교문학전공 박사과정

명의 장편소설 『변신인형』은 지식인 가정을 배경으로 근 한 세기 동안 중국의 역사 소용돌이 속에 위치한 한 가정의 이야기로부터 시대의 양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두 작품은 모두 구체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로부터 공동체가 겪은 근 백년의 역사적 맥락에 접근하는데 이 역사 사건들은 모두 각자 건드리기 민감할 수도 있는 사건과의 밀접한 연관관계 속에서 디테일하게 서술되고 있다. 그들은 또한 지나간 역사를 지금에 와서 다시 추억하고 주인공의 죄의식과 반성의식을 수반하는 등 공통된 점을 지니고 있다.

## 1. 주인공과 작가

작품을 분석함에 있어서 작가의 무의식이 텍스트에 얼마만큼 드러나는지 하는 문제는 조심스럽게 다뤄 줄 필요가 있다. 그러나 작가가 소설의 주인공이나 인물을 자신의 경우로 설정하고 서술할 경우, 소설에서 나타나는 자아의 내면에 작가 자신의 내면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근대에 들어서서 소설쓰기는 지식인의 전속물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밀란 쿤데라는 지식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깊은 사상과 복잡한 정신을 체현하는데 고급지식인보다 잘할 사람은 없다. 고급 지식인들은 양호한 교육을 받았고 높은 수준의 문화, 사상수양을 지니고 있다.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동시대인들과 비교하면 고급 지식인들은 사회 문제에 더욱 민감한 통찰력과 투사능력을 지니고 있고, 사회생활에 섬세한 감수성과 체험을 경험한다. 이데올로기에 대한 가장 절실한 체험자인 지식인들은 사회심리의 정수를 집대성할 수 있다. 지식인들로부터 우리는 사회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 그 가운데서도 개인의 정신세계에 주는 영향

을 깊이 파고들 수 있다.”<sup>1)</sup> 그러므로 지식인은 사회현실에 대하여 일반 군중보다 훨씬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사회문제에 철저한 반성을 진행하며 그들이 스스로 짊어진 사회적 책임감은 그 누구의 것보다 무겁다.

소설가 임철우는 자신을 스스로 “5월의 작가” 자리에 위치시킨다.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라는 문장에서 밝히듯이 그는 광주 밖의 “우리들”과 자신마저도 외면했던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점점 망각해가는 현실과 싸우며, “새 천 년이 열린 첫 해”에도 여전히 “거대한 폭력에 맞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기억하고”<sup>2)</sup>자 소설을 쓰고 있다. 2004년에 출판된 『백년여관』의 등장인물 이진우는 임철우 작가 본인을 모델로 하고 있다. 임철우가 스스로 말했다시피 1980년 그는 소설 속의 이진우가 소속한 Y회관에서 연극연습 중이었고, 이 두 인물은 모두 소설가이며 무엇보다도 창작 동기는 작품에서 “케이”라는 이니셜로 명명된 친구 박효선의 죽음과 그에 인한 죄책감이다.<sup>3)</sup>

왕명의 3인칭 소설 『변신인형』에서도 작가 왕명이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쓰고 있다. 소설은 언어학 교수인 주인공 니자오(倪藻)가 유럽 출장을 가서 아버지의 옛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리고 뒤에 속편이 나오기 전까지 니자오의 부모님 이야기가 액자소설처럼 삽입 서술된다. 니자오의 아버지 니우청(倪吾誠)은 서양유학을 다녀온 근대지식인으로 중국과 서양을 부단히 비교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애석함을 느끼는데, 니자오는 무조건 서양만 동경하지만 서양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결핍하고 또 자신이 비판하고 있는 중국전통지식인의 습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1) 재인용: 安静, 「反思『活动变人形』中的反思」, 济宁学院学报 2010年 02期.

2) 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51호, 2000.

3) 정명준, 「지속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연대 - 임철우의 『백년여관』론」, 『작문연구』 12호, 2011.

언행 불일치의 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급변하던 20세기 중국의 역사적 맥락 속에 아버지의 모순적인 인생을 위치시킴으로써 중국과 서양, 그리고 전통과 현실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소설 역시 작가 왕멍이 자신을 모델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인공 니자오와 왕멍 모두 1934년생이며, 그 아버지가 서양 유학을 갔다 와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1946년에 중국공산당 통치구인 해방구로 갔다. 부모의 불화가 심했고, 어린 시절 시쓰파이러우(西四牌樓) 근처에서 살았고, 중학교 때 공산당에 가입하여 지하활동을 했고, 1960년대 신장(新疆)에서 살았으며 1980년대 독일을 방문하고 문혁 때 망명하여 독일에서 대학교수가 되어 있는 친구를 만나는 등 소설내용은 모두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일치하다.<sup>4)</sup>

이처럼 임철우와 왕멍은 소설 속에서 모두 작가 자신을 지식인 주인공의 모델로 하면서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건을 돌아보며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대해 재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였으며 글쓰기라는 행위를 통하여 독자로 대변되는 민중들을 이끌고 함께 돌이켜 볼 것을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로 닮고 있다.

## 2. 영원을 향한 멜랑콜리

『백년여관』에서 임철우를 모델로 한 임진우는 광주운동 당시 함께 참여하자는 선배의 부름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데 대한 깊은 죄의식을 갖고 있다. 임철우의 이와 같은 자기비판은 『백년여관』 뿐만 아니라 “5월의 소설”

4) 전형준, 「김지하와 왕멍을 통한 「광인일기」 다시 읽기」, 『중국현대문학』 63호, 2012.

시리즈를 통하여 즐기치게 이루어진다. 임철우의 끝없는 자기 비난의 죄의식은 프로이트의 멜랑콜리 환자의 증상과 비슷하다. 작가가 스스로 밝혔다고 광주의 체험이 없었더라면 “지금쯤 작가가 아닌 다른 길을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sup>5)</sup>라고 하였다. 『백년여관』에서 저자는 목구멍의 가시처럼 박혀있는, 토해내지 못한 고백을 소설에 담아내리라 자신과 죽어간 영혼들과 약속을 한다. 그리고 그는 이 “약속을 지켜낸다면 조금은 떳떳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sup>6)</sup> 멜랑콜리<sup>7)</sup> 환자는 죄의식과 자기비하 등 증상

5) 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51호, 2000.

6) 임철우, 『백년여관』, 한겨레신문사, 2004, P313.

7) 정상적인 죄의식은 자아와 자아이상 사이의 긴장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자아의 비판력에 의해 자아에 내려진 유죄 판결이다. 강박 신경증과 멜랑콜리 사이에는 자아 이상의 태도가 구별점을 나타내고 있다. 강박 신경증일 경우, 초자아는 무의식적 이드에 대해 자아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멜랑콜리의 경우 초자아는 분노의 대상이 동일시를 통하여 자아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프로이트 전집,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4, PP394-P407).

그리고 멜랑콜리는 “비애(슬픔)”이라는 정상적인 감정과 비교되면서 거론되어 왔다. 비애는 대상에 부과되었던 리비도에 대한 철회에서 나오는 반발심이 작동한 결과 현실과의 타협사이에서 나타나는 고통의 결과이다. 자아는 이 비애의 작용이 사라진 뒤, 다시 자유롭게 된다. 그러나 멜랑콜리의 경우, 잃어버진 대상이 분명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다. 비애와 멜랑콜리의 다른 점은 멜랑콜리에는 비애에 없는 예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애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자애심(自愛心)의 추락이다. 비애의 경우, 세상이 빈곤해지고 공허해지지만, 멜랑콜리의 경우는 자아가 빈곤해진다.

임철우의 경우, 서영채의 『봄날』에 이르는 길(문학의 윤리, 2005, P350)의 말을 빌린다면, “어느 이방의 군대보다 잔인했던 계엄군과 그 수뇌들에 대한 격렬한 증오와 분노가 한쪽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는 순결한 청년들이 탱크와 기관총 앞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었던 그 날 새벽의 스스로에 대한 자괴와 자책이 있다. 말하자면 그들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공범이라는 묘한 위치에 놓여 있는 셈이다.” 임철우의 마음속에는 군사정권에 대한 분노와 자기 자신과 자신처럼 함께 싸우지 않았던 군중과 “연대”라고 생각했던 광주 밖의 세상에 대한 분노가 동시에 자리 잡고 있다. 작전에 뛰어들지 않음으로 하여, 자신도, 그들도



을 나타 내면서 자기 폭로를 통해 만족을 얻기 위해 집요하게 떠들어 대는 속성이 있다는 가설에 빗대어 볼 때, 임철우가 역시 “편집광”적인 자세로 광주사건을 얘기함으로써 마음의 짐을 털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임철우는 멜랑콜리 환자의 방식을 이용하여 자신의 먹먹함을 풀고자 한다.

임철우는 자신의 비겁함을 소설에 그대로 폭로하면서 “수치심”없는 자신을 비난하고 있다. 멜랑콜리 환자의 비난은 이상적인 대상의 상실에서 온다. 임철우로 하여금 소설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광주사건은 그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갔는가? 친구, 선배, 미래… 무엇보다도 세상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빼앗아 갔다. 막강한 정예군과 맞선 상황에서도 끝까지 도청에 남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이 싸움이 결코 광주시민들만의 싸움이 아닌, 민주주의나 군사독재의 기나긴 나락으로 떨어지느냐는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역사적인 인식 아래에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구원의 가능성은 바로 포위망 저편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다고 시민들은 믿었었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 믿음을 빼앗아 갔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는데, 서울! 서울은 무얼 하고 있는가! 부산은, 대구는, 인천은, 울산은 왜 이리도 잠잠한가!” 하고 외쳐봤자 소용은 없었고 그렇게 기대를 했던 구원의 손길은 어디에서도 오지 않았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멜랑콜리 환자의 대상에 대한 상실감은 곧 자아와 관련된 상실감이다. 광주사건은 임철우로 하여금 타자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잃게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게 되었다. 1980년 5월 27일, 최후 진압작전이 개시되던 밤, 저자는 어둠 속에서 “폭포처럼 쏟아지던 총성과 폭음, … 가두방송 차량 위에서 살려달라고 외치던 여학생들

---

전부 공범이 되었고 세상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상실했다. 때문에 본고에서 임철우를 멜랑콜리 환자의 증상을 지닌다고 본다.

의 절규”등을 들으면서 “방구석에 엎드려 통곡했다.”<sup>8)</sup> 사건 발생 당시에는 여러 가지로 자기 합리화하려고 노력하였지만 자아와 관련된 비판 기관인 바로 “양심”의 재판을 거친 뒤 죄의식을 갖게 된다. 멜랑콜리는 임상적으로 볼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인 이유에서 비롯되는 자아에 대한 불만이다. 멜랑콜리 환자는 스스로 비난하고 스스로에게 욕설을 퍼붓고 스스로 이 사회에서 추방되어 처벌받기를 기대한다.<sup>9)</sup> 전체 사회에 대한 믿음의 붕괴와 동포에 대한 불신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이고 회피하고 싶은 현실이다. 이 견딜 수 없는 지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작가는 할 수 없이 잃어버린 믿음의 현실을 자신이 친구에게 지키지 못한 의리로 동일시하여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통해 “배신” 당했던 현실세계를 외면한다. 임철우의 소설에서 광주항쟁은 하나의 원점인 것이다.<sup>10)</sup> 작가는 케이 장례식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타임머신을 타고 십수년 세월을 거슬러 느닷없이 그때 그 공간 속으로 되던져진 것만 같았다고 한다.”고 한다. 자기비난을 과거로 확대시키는 멜랑콜리 환자처럼 작가는 『백년여관』에서 시간적으로 80년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 뿐더러 베트남전쟁, 6·25 때의 보도연맹 사건, 제주도의 4·3 사건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자아가 죄의식에 빠져있고 끝없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을 때, 지식인이라는 신분은 스스로 소설을 쓰겠다는 사명감을 부여한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의 자리를 사후적으로 만들어낸다. 이때의 멜랑콜리는 대상의 상실에 대한 퇴행적인 반응이라기보다 오히려 상실된 대상을 살아

8) 임철우, 앞의 책, P310.

9) 프로이트 전집,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4, P247.

10) 서영채, 『문학의 윤리』(문학동네, 2005), P338.

있게 만드는 몽환적인 능력이다. 멜랑콜리 환자는 한 번도 소유해본 적이 없는 “그것”의 상실을 연기(延期)하고 있으며 동시에 “그것”의 회복을 끝없이 연기한다. “그것”을 상실의 이름으로 불러내어 실체화하고, 현존하지 않는 “그것”의 영역으로 불러낸다.<sup>11)</sup>

우연히 지역 뉴스를 보다가 케이 선생님 장례식을 보았어요. ... 미치도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더라구요. 왜 저분들만 죽어야 하나.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듯 세상은 모두 까맣게 망각한 채 이리도 흥청망청 돌아가는데, 왜 저들만 홀로 고통을 떠안은 채 저렇듯 하나 둘 쓸쓸하게 죽어가야만 하나. 분하고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더라구요.<sup>12)</sup>

모두들 저리도 당당하게 등 돌리고 멀어져 가는데, 정작 위로 받아야 할 고귀한 정신들이 어째서 거꾸로, 우리들 대신에 죽는 순간까지 고통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이냐?<sup>13)</sup>

임철우는 자신의 반성의식을 계속 되새김질하여 중국에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쾌락에 이르는데, 이때의 쾌락은 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이 사건을 환기시키며 이런 방식으로 상실했던 공동체의 믿음과 기대를 회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은지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근대 모더니즘을 작가들의 작품에도 멜랑콜리적인 주인공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근대의 그들에게는 민중을 계몽해야 하는 사명감이 좌절했을 때 나타나는 절망적인 분위기만 존재했었다면 오늘날의 지식인인 임철우에게는 이미 각성되었지만 상처를 안고 있는 민중을 보듬어야 하는 동시에

11) 재인용: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문학동네, 2010); 원문 출처: Fedida, P., 1978, L’Absence, Paris, Galliamard.

12) 임철우, 앞의 책, P269.

13) 임철우, 같은 책, P319.

냉소적으로 변한 민중과 소통하고 그들의 책임감을 환기시켜야 하는 사명감이 돋보인다.

『백년여관』의 결말을 보면 작가의 사명감에는 죄의식의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작가의 마음속에 평생 맺혔던 응어리인 케이에 대한 배신에서 오는 자기비하의 감정은 케이의 광주항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느슨해진다. 또한 작전 개시 직후 마지막 총격전이 진행된 장소인 도청에서 빠져나왔다는 케이의 죽을 때까지 스스로 고백하지 못한 진실이, 순옥의 입을 통해 전달되면서 작가의 죄책감의 무게가 바로 줄어들게 된다. 죄의식이라는 증상이야말로 작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며 죄의식을 고집하는 것을 통해 외부에 대한 교화의 목적과 작가의 내면 세계의 정신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 3. 화해를 위한 양심의 가책

『변신인형』은 주인공 니자오가 유럽 출장 과정에 아버지의 서양 친구를 만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이다. 소설은 주인공이 아버지 니우청에 대한 추억이 줄거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의 모순적인 행동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아편을 피웠던 니우청은 죽음의 고비를 맞본 뒤 각성하여 어머니를 설득하여 서양식 학교를 다녔고 근대 지식인답게 우국우민하고 후세를 위해 가슴 아파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니우청에게 중국의 낙후한 후진성에 대한 통찰력 있는 비판이라든가 서구 근대문명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니우청의 아내인 정이(靜宜)와의 말다툼에서 아래와 같이 말한다.

중국이 이렇게 낙후되고 쇠약해진 건 국민들이 가슴을 내밀지 않는 것과 절대적으로 관계가 있어. 낯선 사람을 만나면...미소를 지어야 하고...나처럼 말이야. 춤도 추고 커피도 마시고 아이스크림도 먹어야 해. 우선 우유를 먹어야지. 산후 조리할 때 내가 우유를 갖다 줬는데 당신은 안 마셨지. 비리다 하고... 그게 바로 철두철미한 야만이야...<sup>14)</sup>

장발다리를 하는 니우청이 벽돌색 양복을 입은 모습을 징이는 “근본적으로 중국 사람이 아니”라고 욕하지만, 동시에 이 대목에서 스스로 자부심을 느낀다. 장난감 “변신인형”이 나타내는 조화롭지 못한 모습을 한 외모처럼 니우청은 이상과 행동이 분리된 사람으로 묘사된다. 니우청은 자식들의 어린 시절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한다.

물론 나는 믿는다, 너희들이 자라면 잘살게 될 거라고 말이다. 중국이 노상이 풀릴 리는 없어. 세상이 노상이 풀릴 리는 없어. 그렇지만 난 너희들이 자란 뒤에 잊지 말기를 바란다. 너희들이 기억할 거라고 난 믿어...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일본인. 너희들의 유년을 이렇게 보내게 해서 정말 안 되는데!<sup>15)</sup>

니자오가 정치적 입장에 대해 예리한 질문을 하자 니우청은 논리가 없는 거창한 말 만 늘어놓는다. 니우청에게는 일본인, 왕징웨이, 장제스, 팔로군, 공산당, 소련에 대한 스스로의 가치판단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가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모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려고 하자 니자오는 “그럼 도대체 누가 맞아요? 다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14) 王蒙, 앞의 책, P93; 전형준 옮김, 『변신인형』(문학과 지성사, 2004), P143.

15) 王蒙, 같은 책, P173; 전형준 옮김, 같은 책, P263.

왕이탕을 매국노라고 해요? 아버지 매국노도 좋아하세요?”라는 물음에 아버지로서, 근대적인 지식인으로서 일리가 있는 대답을 주는 대신, “헛소리 마라!”라고 성질을 부리는 것으로 아들의 “어려운” 질문을 잘라버린다.

난세의 중국에서 선각자의 역할을 짊어져야 할 지식인 신분인 니우청은 시대가 부여한 책임을 수행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않다. 니자오의 어머니와 이혼을 한 후 그는 한 학교에서 친일적인 총장을 맡았다가 일본이 투항하자 갑자기 “혁명”하러 연안으로 행한다. 그 후 누구보다도 열성적인 마르크스주의자가 되는데 문혁시기 간첩으로 억울하게 지목되어 비판을 받는 과정에서 극 “좌”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니우청이 과분할 정도로 마르크스를 찬양하는 말을 많이 한 덕분에 “반우파투쟁”에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의 이런 행위를 보고 사상담화를 하던 간부가 도리어 “당신은 그래 혁명을 더 하자는건가?<sup>16)</sup>”라고 반문할 지경이다. 이러한 아버지 입장의 돌연 변화에 곤혹스러워 하다가 니자오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미워한다.

중국은 개혁과 개방 이후, 특히 80년대 사상해방 운동을 거치는 과정에서 20세기 초의 신문화운동과는 다른 의미에서의 가치관의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그동안 문화대혁명으로 극도로 억압되었던 문화와 사상 분야에서는 생명력을 가진 새로운 사물들을 받아들여려고 갈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으로부터 갑자기 쏟아져오는 대량의 낯선 사조들은 사상 분야와 문예 분야의 빈번한 논쟁을 야기하기도 했다. 도덕성과 예술성의 가치기준의 선택에서 곤혹스러워 하던 시기에 왕명은 전 시대 지식인들의 걸어온 잘못되었다고 생각되는 교훈, 특히 아버지의 인생을 거울로 삼아 현시대의 지식인들은 니우청과 같은 전철을 밟지 말라는 경고를 주는 차

16) 王蒙, 같은 책, P313; 전형준 옮김, 같은 책, P463.

원에서 이 “고통스러운” 반성을 진행하였다. 문혁의 피해와 문혁이후의 가치관의 혼란은 결코 우연적인 것이 아니며 그 원인을 중국의 전통문화와 역사 속에서 찾아내고자 가족의 비극을 쓰는 것으로 부터 역사의 비극을 반추하고 있다. 왕명은 스스로 아래와 같이 고백한다.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나는 아직 이처럼 고통스러운 책을 쓴 적이 없다.

추악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이것이 실제 인생이고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또 이 고통이 무가치해 보이고 창조의 고통도 분투의 고통도 아니며 심지어 피억압과 피착취의 고통도 아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다. 오랫동안 나는 이런 고통도 기록할 가치가 있다고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이 무가치한 고통을 돌이켜보자니 내 마음은 전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과정은 비록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래서 오히려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sup>17)</sup>

가장 가까운 가족이야기를 쓰는 것은 작가 자신이 밝힌 것처럼 고통스럽고 철저하다. 왕명이 현 시대 민중들에게 전달하려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통하여 무언가를 가르치려는 지식인의 책임의 자리도 그만큼 절실하지 않을까. 왕명은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하여 고통스러움을 마다하고 가족의 과거를 기억해 내려고 하였다. 왕명이 자기희생, 더 나아가 아버지에게 대한 부정을 대가로 당대의 젊은이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예수”의 희생과도 같은 소설쓰기의 뒷면에는 자신이 누리는 잉여의 공간이 존재한다.

앞에서 밝히다시피, 니자오는 작가 왕명의 이야기를 모델로 하여 그러

17) 王蒙, 같은 책, P1; 전형준 옮김, 같은 책, PP5-6.

지고 있다. 그러나 소설의 화자는 니자오가 아니라 니자오와 함께 수영하고 무도회에 가는 “왕형(王兄)”이라는 사람이다. 소설이 삼인칭으로 전개되는 과정에 가끔씩 일인칭으로 서술되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다.<sup>18)</sup> 이때의 일인칭 “나” 즉 “왕형”은 소설을 쓰고 있는 작가가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게 한다.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는 바로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이며 공개롭게 성씨도 왕명과 같은 “왕”씨이다. 그러므로 『변신인형』에는 주인공 니자오와 그의 친구 왕형-두 명의 왕명이 등장하며 그들이 한 작품 안에서의 진행하는 경합은 작가 내면의 형성을 보여주는데 이는 양심의 가책을 유발한다. 니체는 내면적인 인간의 탄생을 언급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논할 때<sup>19)</sup> 가책을 발생시키는 조건으로 하나는 밖으로 향하는 인간의 본능이 안으로 향하는 본능적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결성에 대한 폭력에 의해 맺어진 강제적인 계약이라고 한다. 인간 생존의 조건이기도 한 공동체의 결성은 불가피하지만 평화가 강요되면 될수록 공격충동이 인간 내부를 파고들어 내면화한다.<sup>20)</sup> 작가는 역사의 맥락 속에서 고찰한 아버지의 모습을 아버지가 살아왔었던 민족의 비극적 역사적 시간과 부조리한 사회공간으로 환원시킨다. 아버지에 대한 원한과 부정은 국가와 사회에 의해 빚어진 결과이며 작가는 큰 공동체를 작은 가정이라는 공동체로 대체하고 그 안에서 빛어지는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원한의 감정으로 자신의 내면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이 원한은 소설의 끝에 가면 반성

18) 전형준은 논문 「김지하와 왕명을 통한 「광인일기」 다시 읽기」에 아래와 같이 쓰고 있다. “이 장편소설은 기본적으로 3인칭으로 서술되는데 몇 군데만은 예외적으로 1인칭으로 서술되었다. 끝 부분 이외에도 제1장 첫머리, 제5장 첫머리, 제10장 후반부, 제18장 첫머리, 속집 제5장 전반부 등에 일인칭 화자 ‘나’가 되풀이 등장하는 것이다.”

19)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민음사, 2007, P109.

20) 백승영, 「양심과 양심의 가책, 그 계보의 차이」, 『철학』 90호, 2007.



하는 자아인 왕형이 반성되는 자아인 니자오를 서술하는<sup>21)</sup> 과정에 화해로 나가고 있다.

니우청은 징이에게 등을 구부정하지 말고, 기생이 아닌 여자도 춤출 수 있고, 이를 닦아야 하며 아침과 저녁으로 두 번씩 닦을 수 있고 가래침을 마음대로 뱉지 말라고 자꾸 언급한다. 그러나 이런 건의를 할 때마다 징이의 모욕을 받는다.

전부 개소리야! 돈 돈 돈은? 돈이 없으면 전부 개소리잖아?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이를 닦으면 치약 들지 칫솔 닦지 물 들지 양치물 잔도 닦지 이도 닦잖아! 돈 돈 돈은? 등을 구부리지 말라고, 헛소리야, 헛소리! 가슴을 내밀고 가는 사람이 점잖은 사람이야? 가슴을 내미는 여자는 숨은 갈보 아니면 내놓는 갈보고, 가슴을 내미는 남자는 도둑놈 아니면 정신병자야! 당신 집안은 전부 정신병자야!<sup>22)</sup>

그러나 몇십년의 세월이 지난 오늘날, 니자오는 아버지의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주장은 모순적인 면이 없지 않아도 분명히 전부 부정할 수는 없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변화된 사회의 분위기와 국가의 정책들이 이 점을 더욱 확실히 입증해 주고 있다. 니자오의 어머니 일가가 가래침을 뱉는 데에 대하여 치욕스럽게 생각하던 아버지의 바람대로 현재에는 가래침을 뱉지 못하도록 정책으로도 제지되고 있다.

지금 베이징이랑 여러 도시에서는 아무 데나 가래침을 뱉는 데 반대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정말 좋은 일이네. 내 아버지가 죽어서도 알았다면 기뻐할 거야. 왕형, 생각해봐, 아무 데나 가래침을 뱉지

21) 전형준, 위의 글.

22) 王蒙, 앞의 책, P66; 전형준 옮김, PP103-104.

않도록 하는 임무를 해결하려면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할까?

나는 대답하지 못하였다.

그가 말했다. 전국의 도시에서 아무 데나 가래침을 뱉는 일이 대충 없  
어지려면 몇 세대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너무 보수적인 거 아냐?

그는 담담하게 웃었다.<sup>23)</sup>

니자오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의 불화와 가난을 겪으면서 자라야 했고  
부모의 이혼을 경험해야 했으며 아버지가 노년에 와서는 히스테리적으로  
늘 니자오를 찾아오곤 하였다. 아버지가 주장했던 가치관인 가래침을 함  
부로 뱉는 행위가 없어지려면 지금의 시점에서도 “몇 세대의 시간이 필요  
하다”고 “보수적으로” 여기고 있지만 작가가 소설 끝 부분에 이 사실을 언  
급했다는 점은 아버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정에서 부터 점진적인 용서를  
시작하고 있다는 암시로 볼 수 있다. 아버지가 결코 전부 틀린 것은 아니었  
고 지난날의 오해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들이 밝혀진다. 니자오와 “나”(왕  
형)는 현재 무도장을 현재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고 지어 자연스럽게 서  
양의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다. 니우청이 생전에 그토록 다니고 싶어 했  
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가보지 못한 무도장과 어머니로부터 음탕하다는  
모욕을 받게 한 무도 춤이 “해방된 중국의 새로운 기상이었고 해방 후 사  
람들이 더욱 행복하게 더욱 현대적으로 더욱 개방적으로 살 수 있다는 표  
징의 하나로 되”었다. 뿐만 아니라 무도 춤은 국가가 정책으로 격려하는  
대상이 되었고 80년대에는 아예 전국에서 유행된다.

식사 후 우리는 함께 무도회에 참가했다. 뜻밖에도 니자오는 춤을 아  
주 산뜻하고 능숙하게 추었다. 그가 춤출 때, 여러 쌍의 중국인과 외국

23) 王蒙, 같은 책, P338; 전형준 옮김, 같은 책, P499.

인, 남자와 여자의 눈이 그를 중시했다.<sup>24)</sup>

니자오는 그의 아버지 니우청이 춤추기를 몹시 좋아했고 또 펍 잘 쳤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평생토록 춤출 기회를 몇 번밖에 갖지 못했을 것이다...남자들과 여자들의 복장과 거동은 사람의 미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였다...

이날 밤의 반주곡에는 「보헤미아 아가씨」, 「녹색 앵무새」, 그리고 「지난 여름」이 들어 있었다.

나는, 너, 지난 여름을 특히 좋아한다.<sup>25)</sup>

두 명의 왕명은 아버지가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동경만 했던 무도장에 같이 간다. 한 명의 왕명이 춤을 추고 있을 때, 다른 한명의 왕명은 소설구상에 잡힌다. 니자오는 분명히 아버지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이루고 싶었던 소원을 아들이 이룩할 때 아버지를 이겼다는 승리감보다는 아버지를 평생 미워하고 부정한데 대한 양심의 자책이 생기기 때문이다. 죄의식을 느끼는 순간, 왕명은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며 아버지의 변신인형 같은 가치관과 인생관은 그 한 사람의 잘못만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도 인지하게 되면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을 푼다. 원한 인간유형에게만 적용되는 양심의 가책<sup>26)</sup>을 아버지와의 화해를 계기로 원한을 가셔내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된다.

24) 王蒙, 같은 책, P339; 전형준 옮김, 같은 책, P500.

25) 王蒙, 같은 책, P341; 전형준 옮김, 같은 책, P503.

26) 백승영, 앞의 글.

#### 4. 반성하는 글 쓰는 지식인

한국의 80년대는 시대와 싸우는 과정에서 상처받은 주인공들의 혼돈스런 몸짓<sup>27)</sup>과 그 싸움에서 살아남은 죄책감으로 가득하다. 한국의 정신사에서 80년대와 죄의식은 자연스럽게 병치된다.<sup>28)</sup> 이 정신의 대표자인 한사람이 임철우이다. 그는 1989년부터 단편 「동행」, 「봄날」, 「직선과 독가스」, 「불임기」, 등과 중편 「사산하는 여름」에서 부터 1998년의 5권으로 된 장편 『봄날』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기억에 고착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sup>29)</sup> 『봄날』에 이어 6년의 공백 기간을 두고 2004년에는 본문에서 텍스트로 다루었던 『백년여관』을 출간하여 그의 오월의 글쓰기가 종말이 아님을 말해준다. 중국의 경우, 5·4 이후의 근대 지식인들은 낙후한 전근대에서 벗어나 서구의 문명을 따라 배우려고 노력했지만, 그중 일부 지식인은 니우칭처럼 원칙이 결여한 채로 정치와 형세의 흐름을 타다가 결국에는 속물적인 지식인이 된다. 80년대에 들어서서 개혁과 개방의 과제를 진행하는 과정에 중국은 또 다시 서양과 마주 서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였다. 이때 왕명과 같은 글 쓰는 지식인은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경험했던 5·4 시기 지식인과 대면하면서 모순적인 현실에서 자아의 분열을 일으킨다. 그리고 작가는 이 두 명의 분열된 자아를 통하여 과거에 대한 반성을 진행하며 이로써 현실에 교훈적인 의미를 주려고 한다.

한 시대와 사회의 마스터 플롯이나 반복해서 나타나는 등장인물유형은

27)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P17.

28) 서영채, 「죄의식과 1980년대적 주체의 탄생 - 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2호, 2014.

29) 정명중, 앞의 글, P110.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공유하는 일종의 문화적인 연결고리이다.<sup>30)</sup> 반성하고 속죄하는 지식인이 소설의 유형으로 자주 등장하고 지식인 반성의 스토리가 한 공동체의 마스터플롯을 이룰 때, 이 부류의 소설을 잉태하여낸 사회의 증상을 읽어내야 한다. 앞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두 작가는 소설에 모두 반성의식을 투입하고 결말은 중국적으로 해결을 지향한다. 『백년여관』과 『변신인형』은 자전적 소설의 모티브를 차용하고 있다.<sup>31)</sup> 그러면 이제 임철우와 왕명의 차원에서 역사의 폭력으로 상처를 받은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반성의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역사적으로 유교사상을 공유하는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은 “천하의 사람들이 걱정하기에 앞서 걱정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다.(先天下之忧而忧, 后天下之乐而乐)” 등 사대부적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다. 천하로 대변되는 민중보다 먼저 깨우쳐야 하고 그들을 책임지는 임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한 선비의 윤리관이 앞서 존재한다. 근대에 와서 서구와 소통을 본격적으로 하면서 동양의 근대 지식인들은 계몽자의 입장에서 민족의 부흥을 실현하는데 책임이 있다는 사명감을 스스로 짊어졌다. 그러나 냉전 체제가 정립된 이후, 중국과 한국은 반세기 동안 소통을 단절한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단절 속에서 양국은 비슷한 경험의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다. 중국은 건국이후 시작된 1957년부터의 반우파투쟁에서부터 문화대혁명에 이르기까지 극좌논선의 피해를 심하게 받았고 한국은 한국전쟁, 60년대의 4·19혁명이 좌절을 겪고 그 뒤에 이어진 삼십년의 군사독재정권 밑에서 80년의 광주민주화운동의 유혈탄압은 그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30) H. 포터 애벗, 우찬제 등 옮김,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P101.

31) 서영채, 위의 논문, 인문과학연구, P42.

단절을 겪으면서 소통이 끊긴 상황에서 비슷한 역사적 맥락을 경험하고 보여준 지식인들의 반성의식은 그 뒤에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가 있음을 말해준다. 왕명과 임철우는 국가폭력에 빼앗긴 자신의 자율적인 영역을 다시 획득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글쓰기를 통하여 권력체계의 폐단을 폭로하고 그것을 스스로의 책임으로 떠안고 상처받은 역사를 치유하려고 노력한다. 두 작가가 각각 진행하는 자책과 반성이라는 고민은 죄의식이라는 본질로 귀환되는데 이는 지식인의 책임의 자리를 만든다.

『변신인형』에서 왕명의 분신인 니자오가 아버지에게 죄의식을 느끼는 것을 계기로 왕명의 또 다른 분신인 “왕형”은 아버지와 진행한 화해는 니자오가 자유로운 무도회에서 “아버지 니우청이 춤추기를 몹시 좋아했고 또 펍 잘쳤다”고 말하고 있고 서술자인 “왕형”은 주위 사람들 속에서 “미래에 대한 믿음”을 보아내는 것에서 나타난다. “나”는 “춤의 역사”에 대해 쓰려고 하는데 이를 재고하는 과정은 한 대중현상에 대한 평가 척도가 수시로 변하고 있는 사회에서 아버지의 관점에 대한 고정적인 인식으로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던 자신을 반성하는 과정이다. 삼인칭으로 전개되는 소설에서 삼인칭이 아닌 부분이 다섯 번 등장하는데, 처음 두 곳에서는 “나”의 독백으로 서술되고 두 번째 곳에서 “나”는 “뜨겁고” “고독한” 문학을 쓰기 위하여 은거하고 있지만 “너”와 잠깐 조우를 한다. 세 번째의 독백에서 왕명의 “너”가 독자로 나오고 네 번째에서의 너는 “니자오”를 가리키며 마지막에 나오는 “너”와의 대화에서는 준엄했던 정치 상황 속에서 오해로 나갈 우려가 있었던 우정이 화해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일인칭과 이인칭으로 되어있는 “나”와 “너”가 화해를 진행하는 맥락에서 병행하면서 보여준 것은 아버지와 화해인데 왕명은 아버지가 원망을 사게 된 원인을 아버지 개인의 문제보다도 사회와 역사적인 차원에서 승격시킨다. 그리고 비극의 근원이라고 볼 수 있는 사회적인 요소와 별도로 아버지를 개인의

차원으로 바라볼 때, 니우청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므로 니자오는 속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 불가능은 반성의 지속을 의미하며 왕명으로 하여금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려놓지 못하게 한다. 하여 이런 반성하는 태도는 줄곧 왕명을 동반할 것이다.

『백년여관』의 마지막 부분에서 선배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임철우는 극적으로 죄의식을 내려놓을 수 있었을지 몰라도 죄의식과 마음의 무게는 당시의 트라우마를 공유한 사람들의 공통된 것이다. 작가의 죄의식의 대상이었던 케이는 역설적으로 “그 날 이후 죽을 때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평화로운 적이 없었노라고...”<sup>32)</sup>한다. 비록 작전 후에 “십여명의 어린 여학생을 이끌고 아슬아슬하게 빠져나와” 그들의 목숨을 구해준 케이긴 하지만 살아있다는 이유로, 죽은 벗들과 함께 못했다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시대의 공통된 아픔을 치유하려는 시도의 힘은 미약하지만 작가는 그 시도를 작품 끝까지 진행하고 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년의 아픔을 겪은 영도에서 고향을 진행한다. 비록 초자연적인 힘을 빌려 현실의 아픔을 극복하려는 점에는 한계가 있을지 몰라도 이를 통해 작가의 지난날의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극복하려는 의지는 뚜렷하게 보여진다. 멜랑콜리한 자기비난과 죄의식이 임철우의 삶의 방식이고 그의 삶을 지탱해 주는 요소가 되었다면,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은 임철우에게 무당의 역할을 짊어지게 한다. 고향으로 망자의 원한을 달래고 생존자의 죄의식을 털어낸 후, 임철우는 이제 “기념식”을 대하는 태도로 다시 이 상처에 다가갈 것이다. 임철우는 소설을 쓰는 방식으로 광주항쟁의 “기념식”을 주최하고 있고 그의 소설을 읽은 독자들은 이 기념식을 빛내주는 손님들이다.

---

32) 임철우, 앞의 책, P319.

두 작가는 과거에 대하여 자책과 반성을 진행하는데 왕멍은 고통스러운 자아분열의 방식으로, 임철우는 억울한 영혼들을 불러들여 고통스러운 공감을 공유하는 무당의 화신으로 역사의 폭력에 의해 남겨진 상처를 건드리고 있으며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들이 이 행위를 반복하는 원인은 공동체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치유하며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들이 추구하는 화해는 근원적인, 인간 자체와의 화해며 폭력성 자체와의 싸움을 수행하는 원동력이며 이 싸움을 통해 폭력으로 죽어버린 세계는 재생의 동력을 얻는다.<sup>33)</sup>

## 5. 결론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근대적인 국가를 세워야 하는 이중 임무를 안고 있었던 19세기 말, 20세기 초의 동아시아 국가의 지식인들은 스스로 계몽의 선두에 서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떠안았다. 그러나 자주적인 국가의 국민이 된 오늘날, 푸코의 말을 빌리면 “대중은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더는 지식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식인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다.... 이제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은 대중이 지식인보다 사태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뜻을 잘 표현할 능력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sup>34)</sup> 그러므로 대중의 등장과 함께 선각자적인 위대한 근대적

33) 전형준, 『언어 너머의 문학-문학에 비평적으로 개입하기』, 문학과 지성사, 2014, P29.

34) 재인용: 강수택,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회학』 제34집, 2000. PP507-529; 원문: Foucault, M. 1997. Language, Culture-Memory, Practice. edited by D.F. Bouchard. N.Y.: Cornell University Press.



인 지식인들은 점차 사라져 간다. 이제 남은 것은 죄의식을 느끼고 반성하며 자책하고 변죄하는 글 쓰는 지식인들이다.

중국은 문화대혁명 이후부터 사상의 해방과 더불어 문단은 생명력을 획득하였지만 문학을 정치 담론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년대 이후부터 지식인들은 역사가 남긴 상처를 오히려 더 근원적인 사고로 이어가면서 과거로 추적하여 현재 상처의 근원을 찾고자 한다. 문혁 이후, “상흔문학”을 시작으로 새롭게 등장한 반성문학은 역사적인 맥락에서 앞 세대에 대해 반성을 하였고 이는 개혁문학으로 이어진다. 과거를 드러내는 작업은 지난날의 상처를 건드리는 행위이지만 이는 치유의 방식이기도 하다.<sup>35)</sup> 왕명은 가족의 이야기로 기억해야 할 역사의 교훈을 제시하고 자아 분열을 통하여 아버지와의 화해를 도모하며 이로써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자 한다.

한국은 산업발전 속도가 급격히 빠르던 70년대를 경험하면서 임철우와 같은 작가들이 체험한 광주항쟁 등 사건은 근대성의 폐단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근대성의 폐단이 노출되는 순간, 근대적인 작가의 지위도 추락한다. 작가는 더 이상 계몽적인 해방을 위해 글을 쓰는 작가가 아니라 잘못된 역사적 과오를 짚어내야 하는 또 다른 사명을 부여받게 되었다. 임철우가 느끼는 “살아남은 자의 슬픔”은 “너무나 진지해 보이고 그리하여 무언가 과장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sup>36)</sup> 적자생존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런 죄의식은 낯선 것이며 불편함을 준다. 그러나 이런 진지함 즉 진정성은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형성되어 세대의식의 핵심을 구성하였으며 90년대의 사회 제반영역의 핵심적인 가치로 부각되었다. 그

35) 黄修己,『20世纪中国文学史』下卷,中山大学出版社,2004,P123.

36) 강수택,「지그문트 바우먼의 탈근대적 지식인론」,『현상과 인식』25호,2001,P158.

러나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는 진정성의 모델이 현실적으로 융성할 수 있는 환경과 토대를 상실하게 된다.<sup>37)</sup> 모든 문제는 생존 그 자체에 귀결되며 부끄러움과 죄의식은 사라져 버렸다. 과거의 상처는 치유를 받지 못했는데, 사라져 버린 수치심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는 임철우는 멜랑콜리 환자처럼 자신의 자기비하를 반복하는 것으로 그것을 회귀시킨다.

한·중 지식인들은 죄의식과 반성의식으로 사명을 완성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죄의식을 내려놓으면서 과거의 아픔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다. 임철우는 멜랑콜리적인 증상을 빌어 부단히 역사를 환생시킴으로써 광주항쟁에서 받은 트라우마적인 기억을 치유하려고 시도하고, 왕멍은 반성과 자책의 방식으로 원한을 풀고 화해를 도모하면서 자신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었던 공동체 내부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나간 과거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은 지식인들만의 몫이 아니라 그들이 속한 공동체가 함께 극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근대의 계몽 과제를 스스로 떠맡았던 것처럼 오늘날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소설을 쓰는 것을 통하여 공동체를 위로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마음의 짐을 덜어주고 상처를 치유해 준다는 것에 오늘날의 글쓰기의 의미가 있다.

## 참고문헌

### 기본자료

王蒙, 『王蒙文集』第二卷, 华艺出版社, 1993.

임철우, 『백년여관』, 한겨레신문사, 2004.

37) 김홍중, 같은 책, PP19-20.

## 논문 및 단행본

- 安静, 「反思『活动变人形』中的反思」, 济宁学院学报 2010年 02期.
- 임철우, 「나의 문학적 고뇌와 광주」, 『역사비평』 51호, 2000.
- 강수택, 「근대, 탈근대, 지식인」, 『한국사회학』 제34집, 2000.
- 백승영, 「양심과 양심의 가책, 그 계보의 차이」, 『철학』 90호, 2007.
- 강수택, 「지그문트 바우먼의 탈근대적 지식인론」, 『현상과 인식』 25호, 2001.
- 정명준, 「지속의 시간 그리고 고통의 연대 - 임철우의 『백년여관』론」, 『작문연구』 12호, 2011.
- 전형준, 「김자하와 왕명을 통한 「광인일기」 다시 읽기」, 『중국현대문학』 63호, 2012.
- 서영채, 「죄의식과 1980년대적 주체의 탄생 - 임철우의 『백년여관』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 42호, 2014.
- 黄修己, 『20世纪中国文学史』下卷, 中山大学出版社, 2004.
- 朱栋麟等, 『中国现代文学史』下册, 高等教育出版社, 2007.
- 전형준 옮김, 『변신인형』, 문학과 지성사, 2004.
-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근본개념』 윤희기, 박찬부 옮김. 열린책들, 2004.
- 서영채, 『문학의 윤리』, 문학동네, 2005.
- 서영채, 『사랑의 문법: 이광수, 염상섭, 이상』, 믿음사, 2007.
- H. 포터 애벗, 우찬제 등 옮김, 『서사학 강의 - 이야기에 대한 모든 것』, 문학과 지성사, 2010.
- 김홍중, 『마음의 사회학』, 문학동네, 2010.
- 전형준, 『언어 너머의 문학』, 문학과 지성사, 2014.